

해외 선진사례 학습 및 견학 보고서



2018.11.19 - 11.23

일본 카가와·도쿠시마·효고·오사카



충남연구원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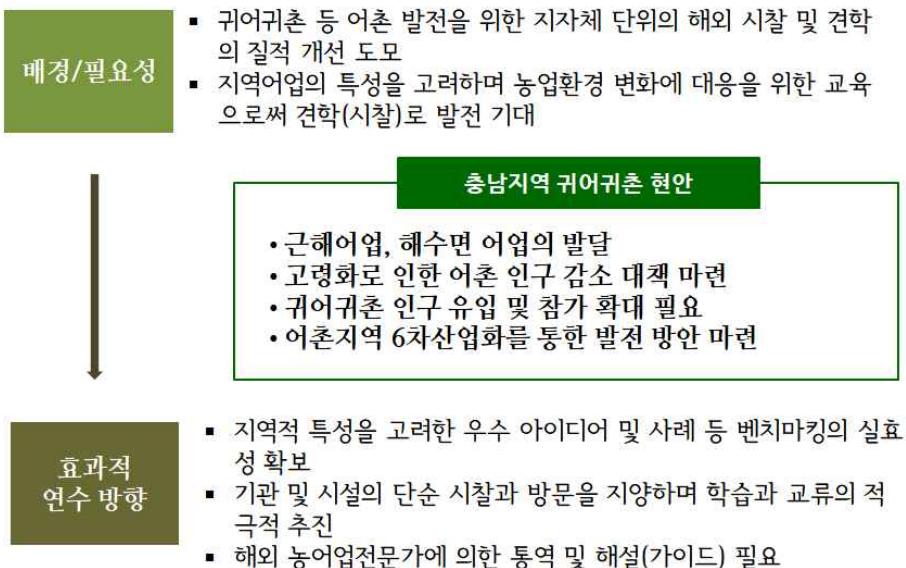
목 차

1. 일본 연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05
2) 연수의 방향	06
3) 연수의 목적	06
2. 연수 기획과 추진	
1) 방문기관과 연수테마	08
2) 연수지역	09
3) 연수일정 프로그램	10
3. 방문지별 연수 내용	
1) 사카이데 수산시장	11
2) 카가와현 농정수산부 수산과	13
3) 미나미초 산업진흥과	19
4) 이자리어업협동조합	24
5) 아와지시 수산진흥과	28
6) 타고센베이노사토 신선시장 나카다무라	31
7) 아카시우오노타나	33
8) 무로츠어업협동조합	36
9) 구로몬이찌바	39
4. 연수소감 및 평가	
1) 참가자 소감	42
2) 설문과 평가	47

1. 일본 연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귀어귀촌 등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해외시찰 및 연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운영되는 연수가 어업인 위로성 형태의 전시행사에 머무르는 문제점이 있음.
- 이의 주된 원인으로는 연수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연수 참가자의 목적과 방향에 맞춘 기획이 부재한 것과 어업 및 수산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여행가이드에 의한 통역에 의존되어 충분한 정보 습득과 학습에 연계되지 못함.
- 따라서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서는 ①해외농어업 전문가 및 경험자로 한 통역 및 해설을 동반하는 한편 ②지역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며 ③연수 참가자의 수요와 희망을 일정 부문 반영한 기획이 따르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여 연수 결과가 향후의 어업활동 및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 되어야 함.



2) 연수의 방향

- 충남의 어업은 근해어업 및 해수면 어업이 발달하여 이에 관련된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음. 동시에 어업인구의 감소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어업종사자 및 관련 사업 종사자를 비롯한 어촌지역 인구 유입이 과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어업 환경 및 지역적 사정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충분히 기획되어야 하며, 연수를 통해 얻는 아이디어와 최신정보가 어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방문지의 선정 및 시찰 내용이 담보되어야 함.
- 따라서 연수지역 및 방문처가 단순한 시찰에 그치지 않도록 일본 어업 및 현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연수전문가 그룹의 지원으로 적합한 자료 및 정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전공자의 동반에 의한 통역 및 해설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함.

3) 연수의 목적

- 일본 귀어귀촌의 우수한 사례 및 정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일본 중앙정부의 귀어귀촌 및 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책, 이에 관련된 지방정부에서의 특화된 사업 및 프로그램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현장 사례를 벤치마킹함.
- 특히 근년 수산업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산업 창업 및 수산업의 6차산업화 사례를 다양하게 견학하여 경영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충남지역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 인재 양성
- 일본 어업인들의 성공적인 어업 경영을 통해 어업인으로서의 삶의 비전, 목표를 이해하고 연수 참가자들의 비전과 목표 설정에 기여하도록 함.

- 우수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양한 정보와 연수 방법론이 축적되게 하여 연수 참가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충남지역 어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함.

□ **일본문화탐방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장 형성**

- 어업경영활동 및 어촌문화만들기에 직·간접 연계되는 문화탐방 및 현지인과의 교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움.

2. 연수 기획과 추진

1) 방문기관과 연수 테마

- 본 연수에서는 보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귀어귀촌과 관련한 방문기관을 ①지방정부(광역단위, 시군단위) 수산과 ②어업협동조합(수협) 및 어촌마을 ③수산업관련기업 및 유통시장(어시장)으로 구성함.
- 이는 지역의 어업 환경을 기반으로 충남귀어귀촌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업인력 육성 전략을 통한 어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춤.

[방문기관별 연수 테마]

광역단위(현) 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산업 진흥대책 • 어항활력 재생 플랜(수산청) 사례와 성과 • 어업후계자 육성 : 어업후계자 지원사업
시군단위 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후계자 육성 • 지역 수산업 진흥대책어업 6차산업 • 지역수산물 소비 확대, 먹거리교육
어업협동조합 어촌활성화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어가 인구 유입 프로젝트 • 어촌유학제도 :父子유학체험, 해녀체험 • 어협여성부 활동 : 생선요리교실 • 어업 6차산업, 직거래(직매장) 개설
수산업관련기업 유통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특화상품 • 지역수산물 상품화 • 수산물 유통과 마케팅 전략
기타 어촌문화 생활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역사문화경관 선정지(어항) • 추부-시코쿠 해협, 해안, 도서지역 경관 • 폐창고 활용 상점가 • 지역문화탐방 : 아하오도리 체험

2) 연수지역

- 일본 시코쿠 간사이 일원으로 일본 중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충남의 서해 어촌마을과 비교적 유사한 어업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도시(오사카, 히로시마 등)에 인접, 젊은 층의 인력 유출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인재를 유입하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련된 시책과 프로그램을 사례로 연구하기에 적합함.



3) 연수 일정/프로그램

일 자	시 간	주 요 일 정	지 역
11/19 (월)	07:00 09:10 10:45 12:00 14: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집결 인천공항 출발(RS702) 다카마츠공항 도착 사카이데수산시장 중식 카가와현 수산과 석식 및 호텔 투숙(도쿠시마) 	인천 ↓ 카가와 (타카마츠공항) ↓ 도쿠시마
11/20 (화)	10:00 12:00 13:00 17: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나미초 산업진흥과 이자리cafe 중식 이자리어협·이자리미래추진위원회 아하오도리박물관 석식 및 호텔 투숙(도쿠시마) 	도쿠시마
11/21 (수)	09:00 10:30 13:30 15: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루토해협·나루토대교 아와지시 수산진흥과 타고센베이노사토 신선시장 나카다무라(직매장) 아카시 우오노타나 석식 및 호텔 투숙(효고/히메지) 	도쿠시마 ↓ 효고 (히메지)
11/22 (목)	10:00 12:00 13:30 17: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로츠어협·무로츠어항 무로츠어협 중식간담회 히메지성 도톤보리 석식 및 호텔 투숙(오사카) 	효고 ↓ 오사카
11/23 (금)	09:30 10:00 15:00 16:55 1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식 및 이동 구로몬시장 간사이공항 출국수속 간사이공항 출발(RS763) 인천공항 도착 	오사카 (간사이공항) ↓ 인천

3. 방문지별 연수 내용

1) 사카이데 수산도매시장(해산진미 후레아이이찌바)

일시 : 2018. 11. 19 (월) 12:30-13:30

위치 : Sakaide Fish Market, Sakaide Kagawa

참고 : <http://uminosachi-fureai.co.jp/>

□ 후레아이이찌바 개요

- 사업형태 : 수산물 지방도매시장
- 2013년 사카이데수산지방시장과 마루가모어시장을 통합한 수산시장
- 병설 ‘이타다끼상’ 해산물식당 운영(이타다끼상=いただきさん, 생선행상을 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
- 매일 오전 5시 경매 실시, 경매 후에는 일반 소비자가 어시장 형태로 구입
- 영업시간 : 오전 7시 ~ 오후 3시



□ 시장 활력을 위한 이벤트 운영

- 수산물 소비확대와 안심 먹거리 보급의 차원에서 독창적인 운영 및 이벤트 개최
 - 시장 내 ‘터치 풀’ 운영 : 수종의 활어 접촉 체험
 - 일반인 참가 모의 경매시장
 - 참치(마그로) 해체 쇼, 매주 일요일 오전



■ 시사점

- 후레아이이찌바는 이동상에 중식을 이용하는 한편 자유견학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시장관계자의 설명은 없었으나, 시장 내 상설 매장에서의 다양한 수산 가공 상품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일본의 소비 물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수량 및 중량에 비해 가격대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이 소포장 되어 당일 내지 2~3일내 소비되는 소포장이 주목됨.
- 규모면에서 중소형 도매시장으로 항구 인구의 국도변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지역주민들이 활용에 유리한 장점이 있음. 오전 경매를 거친 수산물은 바로 시장에서 도소매로 유통되는데, 저렴한 가격보다는 신선한 수산물의 구입에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

2) 카가와현 | 농정수산부 수산과

일시 : 2018. 11. 19 (월) 14:00-15:30

참석 : HONDA Koiji 주임(어협강화후계자육성)

TAKEMORI Hiromasa 과장보좌(어협강화후계자육성)

UEHRA Keiji 위탁직원(어협강화후계자육성)

위치 : Kagawa Pref. / Fisheries Division

참고 : <http://www.pref.kagawa.lg.jp/>

□ 카가와현 수산업 개요

-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동부에 위치, 3개의 해역과 많은 섬으로 구성
- 해안선 총 길이 721km, 해역면적 1,923km², 기복 심하고 해저지형에 따른 복잡한 조류 발생, 생식 수산물이 풍부, 생산성이 높은 온난한 천해의 어업환경
- 1928년 방어(하마치)양식 성공 : 전국의 어류양성의 초석이 됨
- 현 수산업은 해면어업, 양식업을 중심, 내수면어업, 양식업 및 수산가공업에 주력
- 2016년 카가와수산업기본계획 책정
 -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하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확대, 판매 강화
 - 활기찬 어업자 육성과 생산력 향상을 높이는 어항·어촌 창조
 - 매력 있는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로 활기찬 어항의 부활



□ 카가와현 수산업 동향

○ 해면어업 및 양식업 경영체

년도	어업경영자총수		해면어업		해면양식업	
	전국	카가와	전국	카가와	전국	카가와
2003	132,417	2,214	111,733	1,726	20,684	488
2013	94,552	1,691	79,562	1,336	14,960	255

○ 주요 어업종별 분포

구분	가선 저인망	선인망	가타 어망	정치 망	자망	낙시	기타	방어	도미	굴	김	가타 양식
경영체	483	32	53	64	386	167	553	46	5	54	110	40
%	30	2	3	4	24	11	35	3	0	3	7	1

○ 주요 어업종별 분포

년도	합계	남성 합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여성
2003	3,636	2,900	14	152	226	375	588	1,545	736
2013	2,484	2,182	11	145	202	254	364	1,206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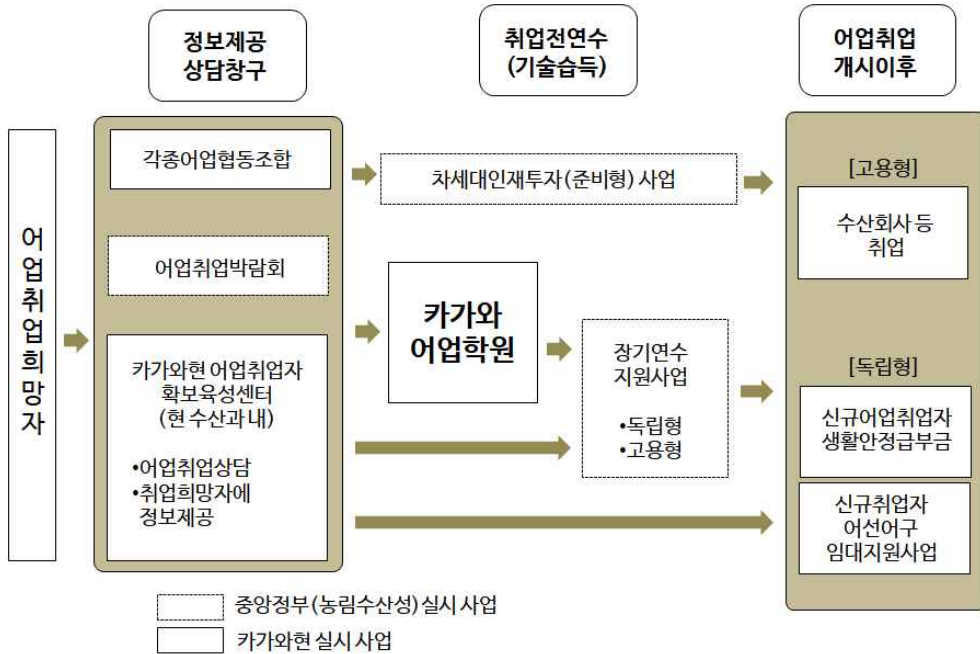
○ 해면어업·양식업 생산량/산출액 2016년, ton/백만엔

년도	해면어업·양식업합계		해면어업		해면양식업	
	전국	카가와	전국	카가와	전국	카가와
생산량	4,296,125	43,081	3,263,618	18,221	1,032,507	24,860
산출액	1,471,638	21,845	9,61,915	8,463	509,724	13,382

□ 카가와현 수산물유통 및 가공업 동향

- 수산물시장 : 중앙도매시장 1, 지방도매시장 8, 기타 어시장 5개소
- 현내 시장 취급 수산물 32,698ton, 234억엔(중앙시장 취급 비율 74%, 금액비율 72%)
- 수산물브랜드화 : 올리브방어, 히케다방어, 이부키멸치 등
- 수산가공품 : 식용가공품(9,328ton), 냉동식품(5,669t), 건조(3,824t), 혼합(2,337t)

□ 카가와현 어업취업자 지원 사업 개요



□ 카가와현 어업취업자 지원 사업

① 카가와현 어업취업자 확보육성센터

- 현 농정수산부 수산과 내 설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수산회사로부터의 구인정보 제공 <http://www.ryoushi.jp/>
 - 어업취업자 취업 상담, 매칭지원, 취업후 진로 상담
 - '카가와어업학원' 사업 상담
 - 현 및 중앙정부 어업후계자확보육성 지원사업 상담

② 카가와어업학원

- 연수기간 : 6개월(4월~10월경), 월 100시간 연수
- 모집정원 : 6명
- 연수내용 : 이론 및 기술연수(각종 어업현장 견학)
- 대상자격 : 50세 미만, 현내 취업자, 취업까지 자립 생활 여부
- 수강료 무료, 숙박비 및 식비, 작업복 등 자부담

- 사업주체 : 사단법인 카가와수산진흥협회
- 중앙정부 차세대 인재투자(준비형) 사업에 해당, 급부금 가능

③신규취업자 어선어구 임대 지원사업

- 신규독립취업자의 초기 설비투자 부담 경감, 어협에서 신규취업자에게 대여하는 어선, 어구의 경비를 현에서 50% 보조(보조한도액 250만엔)
- 사업주체 : 각종어업협동조합
- 조건 : 카가와어업학원 수료자 및 중앙정부의 장기연수지원사업 수료자, 어업취업자가 새로운 독립 경영
- 대상 : 어협의 조합원 자격 취득, 어업허가 취득

④신규어업취업자 생활안정 급부금

- 신규 독립한 어업경영 곤란 취업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급부금액 : 최고 1년차 150만엔, 2년차 120만엔, 3년차 90만엔
- 매월 면담에 의해 각어협에서 지급
- 사업주체 : 각종어업협동조합
- 요건 : 취업시 50세 미만, 카가와어업학원 수료자 및 중앙정부의 장기연수지원사업 수료자, 생활보호자금 등 수급없는자, 어협 조합원 및 어협 이사회 승인자, 해당 급부금을 제외 전년 소득의 기준 이하(1년차 250만엔, 2년차 300만엔, 3년차 350만엔)



■ 시사점

- 카가와현에서의 신규 어업인 취업 지원과 육성에 있어서는 양적 성과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함. 이에 따라 소수 정예의 인원을 선발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을 통한 어촌마을의 지원을 장려함.

- 지원기구의 체계는 현의 수산과에 두어 직접적인 행정 지원을 담보하고 있으며 수행 인력은 어협 및 어업 관련기관의 은퇴자 등 경력자를 두어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음.
- 현의 재정적인 한계에서 지원사업 및 배정 예산은 많지 않으나 세분화된 지원책을 두어 적재적소에 보조금 및 지원금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예산과 연동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함.
- 주목할 만 한 점은 어업 신규 취업자가 카가와어업학원에서 연수하는 동안의 다양한 현장 경험은 결과적으로 어업협동조합과의 컨택이 되는 방식임. 따라서 특정 또는 소수의 어촌마을(어촌계) 및 수협이 아닌 여러 그룹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어협)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와 같은 시스템은 취업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 생활안정자금 이외의 연수지원비 및 어선어구 지원과 같은 사업비는 신규 취업자가 소속되어 있는 어협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사업비의 투명한 지출과 취업자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자료 1 일본 중앙정부의 어업취업자 지원사업

①차세대 인재 투자(준비형) 사업

- 어업인재육성 종합지원사업 일환
- 어업취업을 위한 도도부현이 인증하는 어업학교(카가와어업학원 해당) 등에서 연수준비자로 취업준비단계에서 지원
- 월 액 12.5만엔(6개월 최대 75만엔)
- 실시주체 : 사단법인 전국어업취업자확보육성센터
- 요건 : 1년이상 어업에 종사없는자, 3친족이내 어업관련 회사에 종사없는자, 도도부현 인증 어업학원 수료자, 취업예정시의 연령 45세 미만

②장기연수지원사업

- 어업인재육성 종합지원사업 일환
- ‘차세대 인재 투자(준비형) 사업’의 다음 단계
- 어업자(2차고용기관)과 어협(1차고용기관)의 연수계획 책정하여 카가와현 어협의 승인을 받은 연수실시자(어업자, 지도자)에 대한 지원금
- 어업자(지도자)는 연수생에게 임금으로 지급
- 연수기간 : 독립형 최장 2년, 고용형 최장 1년
- 조성금 : 독립형 최대 4,700엔/시급(월 최대 20시간), 고용형 최대 2,350엔/시급(월 최대 20시간)
- 사업주체 : 카가와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
- 요건 : 어업경험 1년 미만, 연수기관은 고용계약 체결 및 산재보험 가입, 지도자와 연수생은 4친족 이상

3) 미나미초 | 산업진흥과

일시 : 2018. 11. 20 (화) 10:00-11:30

참석 : KOBAYASHI Daisuke 서기(미나미초 산업진흥과 어촌진흥)
YAMAMOTO Kouji 과장보좌(도쿠시마현 수산진흥과, 유통담당)

위치 : Minami Town / Industrial Promotion

참고 : <https://www.town.minami.tokushima.jp/>

□ 미나미초 수산업 개요

- 두쿠시마현 동남부에 위치, 도쿠시마 시내로부터 50km 거리
- 총면적 140.85km², 태평양으로 접하며 따뜻한 흑조의 영향으로 풍부한 어장을 보유, 7개의 어협이 활동
- 미나미초는 해수면어업, 소형정치망, 자망 등 중심
 - 채취어업 : 전복, 소라, 해조류
 - 자망어업 : 이세애비(새우)
 - 소형정치망 : 정어리, 아지(전갱이), 가다랭이, 아오리이카(오징어)
 - 채낚기 : 돔, 불대, 장어
 - 낚시 : 갈치, 아사키(벤자리)
 - 기타 대형 연안저인망 1척, 대형정치망 1기
- 근년 어획량 감소, 어업자 감소,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 직면
- 종래의 바다 낚시, 어선 낚시를 이용한 낚싯배 대여, 다이빙안내업, 대형정치망을 이용한 관광어업 진흥 도모
- 2011년 새로운 해조류 양식 산업에 착수, 수산업 진흥을 도모



□ 미나미초 수산업 지원사업

①지역산업육성 연수장려금

- 주민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구, 습득 등 지역외 연수시 비용 지원
- 교통비, 차량렌트비, 주유비, 숙박비 등
- 1인 최대 1만엔(년간), 1세대 최대 2만엔(년간)

②지역산업 경영근대화자금 이자보조

- 주민이 지역산업 경영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보조(운전자금은 미해당)
- 이자총액의 1/2(매년), 5만엔 한도

③후계자 육성 장려금

- 주민이 지역산업종사자의 후계자가 되는 경우(어업자의 경우 어협추천장)
- 졸업후 10년 이내, (J턴, I턴 후계자는 40세 미만)
- 5만엔 지급/1인

④농산어촌 지속 활성화 지원사업

- 부가가치형 농림어업진흥, 농산어촌 후계자 대책, 고령화·저출산 대책, 환경경관 보전 및 향상, 도시-농산어촌 교류 등
- 수혜 3호(세대) 이상 단체
- 사업비의 1/2, 150만엔 상한 보조금 지급

□ 도쿠시마 어업아카데미

- 모집인원 : 7명
- 연수기간 1년, 이론 및 현장실습, 자격취득
- 연수장소 : 현 수산연구청사(이론), 수산종묘생산시설, 어업생산현장 등
- 자격 : 18세 이상, 도쿠시마현 주민등록, 연수후 현내 취업자
- 연수중 지원제도 : ‘차세대인재투자(준비형)사업’ 이용, 생활자금 12.5만 엔/월 급부

이론(30일)	어업개요, 법규, 경영, 자원증식, 6차산업, 안전조업, 어촌생활 등
현장실습(160일)	해상실습, 로프워크, 종묘생산, 기관관리, 어구 등
자격취득(10일)	1급소형선박조종사, 해상특수무선기사



■ 시사점

- 미나미초는 우리의 읍·면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으로 대부분의 어업과 관련된 지원은 상위기관인 도쿠시마현의 시스템에 따름. 미나미초의 방문 시찰은 상위기관인 현과의 관계 속에 하위기관의 어려움, 특히 현장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간극 등을 살펴보고자 함.
-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 등의 정책을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며 미나미초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정책 - 연수장려금, 경영근대화 이자보조, 후계자육성자금 등이 마련되고 있음.
- 미나미초의 특징 있는 사업은 ‘농산어촌 지속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리의 6차산업화 지원과 마을기업지원사업과 유사하나, 사업의 범위나 주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이는 필요 지역 또는 단체의 자원에 맡기는 셈인데 농산어촌과 관련된 계획, 컨설팅, 시설투자, 홍보 등 특정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신규취업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그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지출후 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없는 점에서는 말 그대로 생활 안정을 위해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임. 동시에 일정기간(3년간의 취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종사를 유도하고 있음.
- 카가와현 및 미나미초의 수산업무에서는 공통적으로 1차 생산(조업 등)에 주력하고 있는데 가공 및 유통의 2, 3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서에서 지원이 이루어짐. 이는 결국 1차 생산 그 자체가 존속되어야 2, 3차가 이루어진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에서는 1차 생산 현장에서의 인력 육성과 그와 관련된 시책에 집중되는 장점이 있음.

참고 나루토(鳴門) 소용돌이

- 나루토해협을 소용돌이 발생 요인중 하나는 해수의 흐름으로 만조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해수면의 상하운동 발생
- 나루토해협의 폭은 1.3km V자형으로 최대심부는 약 90m, 갑작스럽게 좁아지기 때문에 해수의 흐름이 빨라지는 특징
- 조류의 저항이 적은 심부는 물살이 빠르고 저항이 많은 표면부는 천천히 흘러기 때문에 상호 부딪히면서 소용돌이가 발생
(평균 13~15km/h, 만조와 바람의 영향에 따라 20km/h)



참고 아하오도리(阿波踊り)

- 8월 오봉축제 춤인 ‘봉오도리’의 하나, 400여년의 역사를 가지나 유래는 여러설이 존재(도쿠시마성 축조 기념설, 봉오도리 기원설 등)
- 초기는 도쿠시마오도리였으나 메이지이후 ‘아하오도리’로 유명, 동 시기에 빈번한 문화교류의 영향으로 각지의 춤, 노래 등과 혼입되어 독특한 춤으로 변화
- 리듬에 따라 왼손-왼발, 오른손-오른발을 동시에 내는 규칙만 있어 단순함으로 누구나 참여가 용이한 특징



4) 이자리어업협동조합 · 이자리미래추진위원회

일시 : 2018. 11. 20 (화) 13:00-14:30

참석 : KUSANO Yusaku 조합장

위치 : Izari Fisheries Cooperative, Kaibu Tokushima

참고 : <http://www.izarijin.jp/>

□ 어촌유학과 이자리 지역만들기 운동

- 도쿠시마 남부의 어촌마을로 인구 50세대 약 100여명, 이중 60%에 이르는 주민이 외지에서 이주
- 특별한 명소가 없고 평범한 어촌이나 전국 각지에서 이주를 희망하나 '면접'을 통해 진정한 지역의 일원을 엄선
- 이자리의 희망이었던 이자리교(소학교, 중학교 분교)가 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 주민운동으로 1991년 '오세요, 바다 학교'를 개설, 행정지원없이 촌외로 부터 독자적인 유학생 입학 실시
- 2000년 마을, 어협, 학교, 부인회 등 지역의 모든 단체가 참가하는 '이자리미래추진위원회' 발족



□ 이자리 어촌유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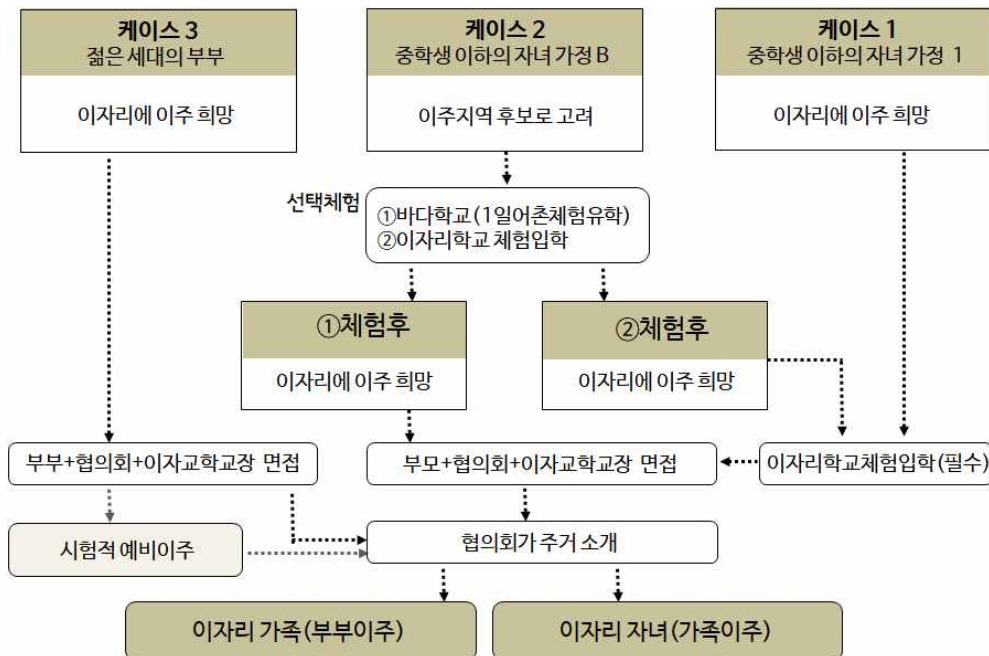
- 이자리 어촌유학은 부모동반이 절대 조건으로 1~2년 단기를 포함,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넘는 전입 실적
- 이자리 이주 프로차트에 의해 부모, 협의회, 학교장과의 면접으로 결정
- 1일어촌체험학교 및 해녀체험교실 운영
 - 1일어촌체험학교 : 매년 여름, 참가비 3천엔, 부모동반 필수, 해변놀이/

스노클링/카누체험/정치망어업체험/새우잡기 등 운영

- 해녀체험교실 : 18~40세 여성 대상, 7~8월 운영, 참가비 1만엔, 이론과 바다 실습



□ 이자리 이주 프로차트



□ 이자리cafe

- 이자리는 음식을 먹을 식당이 없는 곳으로 마을만들기의 탄력을 받아 이자리의 어부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 2007년 오픈
- 개점 이후 호황, 도쿠시마 시내에서 오는 고객도 증가

- 이자리의 수산물을 소재로 하나 지역 노인들은 배려하여 카레와 우동 매뉴도 마련
 -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은 택배 서비스도 실시
- 카페의 2층은 콘도형 숙박시설(객실 2)로 체험방문객에 유료 제공

□ 이자리의 주민생활 8수칙

- ①다름을 인정할 것(十人十色、百人百樣)
- ②먼저 움직일 것(생각만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 ③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신들이 생각해서 실행할 것(실전경험이 없는 행정가, 컨설턴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 ④평상복을 입을 것(어울리지 않는 넥타이와 화장을 안한다)
- ⑤주민이 즐거워할 것(과도한 베품은 하지 않는다)
- ⑥아이도 어른도 모두 대등할 것
- ⑦활동에 의무를 부여하지 않을 것(참가는 자유, 무리하지 않는다)
- ⑧불평하지 않는 것

□ 이자리의 행사(공동체 활동)

- ①주민총동원 클린 업(청소) 활동
 - 전 주민이 참가 2~3월에 1회 해안가 청소, 하천 및 도로 청소, 잡초제거 → 마을 독자적인 ‘무단 투기 방지’ 규정 책정
- ②이자리축제·문화제·운동회
 - 이자리교의 문화제를 가을축제, 축제마지막은 주민 총동원 운동회 개최
- ③어른이 가르치는 정치망·어업체험
 - 정치망을 통한 어획, 판매에 마을 어린이들 참가
- ④아이들이 가르치는 바닷가학교
 - 아이들이 해변의 생물생태 등을 조사, 매년 7월에 어항에서 발표, 어른들은 배우는 입장에서 참가

■ 시사점

- 이자리어촌마을 소외지역 및 한계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로 일본 내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인구의 유출 및 고령화를 외부로 부터 유입하여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마을이 사라지는 위기에서 전 주민들의 협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 축제, 체험, 학교운영 등 모든 활동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상호를 존중하는 배려가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행정의 지원을 외면 받은 이자리는 독자적인 생존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이는 행정의 불신임이나 결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였으며, 꾸준한 대화와 문제제기를 통해 ‘문제의식의 공유’를 지향하고 있음. 즉, 최소한의 지원을 합리적 방법으로 요구하였고 행정이나 컨설턴트에 휘둘리지 않는 주민주체의 최적화된 마을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이자리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리한 유입과 과도한 투자 등의 수단보다는 이자리를 지원하는 외부 지원그룹 ‘이자리 인구 10만명’ 프로젝트를 통하여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이자리의 사례는 오늘날의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5) 아와지시 | 수산진흥과

일시 : 2018. 11. 21 (수) 10:40-12:00

참석 : SUZUKI Kouji 과장

HITAKA Nobuyuki 계장

위치 : Awaji City / Fisheries Division

참고 : <https://www.city.awaji.lg.jp/>

□ 아와지시 수산업 개요

- 오사카만 및 하마탄(고베항 인근)에서 주로 어업이 이루어지며 소형 저인망, 선인망을 중심으로 자망, 통발 등 어업 경영
- 주요 수산물 : 까나리, 전갱이, 새우, 아나고, 도미, 김, 미역 등
- 근년 영양염 농도 저하에 따른 생산력 저하, 어획량 감소, 해태 색상 불량 등 어업환경 위기
- 2006년 아와지시어업진흥회 설치, 풍부한 어장만들기 일환으로 행정과 협력 어초설치, 어장정비, 종묘방류, 재배어업 등 자원관리형어업 추진
- 2018년 현재 20개 어항 17개 어협 소재



□ 아와지시 수산업 동향

○ 주요 어업종별 어획량 및 어획고 추이 ton/백만엔

구분	경영체수	1978	1993	2003	2010
소형저인망	403	4,072 (2,100)	4,673 (3,385)	3,321 (2,502)	2,782 (1,947)
선인망	182	13,883 (2,736)	15,924 (3,376)	12,761 (4,577)	9,447 (3,815)
자망(건망)	101	393(227)	320(350)	191(195)	164(180)
통발	-	246(281)	117(124)	121(109)	88(77)

○ 주요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고추이 ton/백만엔

구분	이와시	까나리	가자미류	도미	문어	새우류
1978	1,935 (998)	12,077 (1,764)	249 (328)	49 (142)	653 (337)	1,238 (668)
1993	3,001 (2,074)	13,069 (1,271)	222 (341)	189 (301)	1,528 (769)	829 (868)
2003	6,822 (1,917)	5,825 (2,612)	185 (268)	257 (287)	971 (742)	306 (258)
2010	6,484 (2,217)	2,948 (1,585)	142 (192)	294 (299)	630 (492)	233 (207)

○ 김 양식(2012년 현재) : 92어가 223명, 약 415만매 생산, 33억엔

- 1995년 비교 176어가 466명, 약 630만매 생산, 65억엔

○ 미역 양식(2012년 현재) : 16어가 19명, 약 67kg생산, 16백만엔

- 1995년 비교 40어가 88명, 약 310만kg생산, 44백만엔

□ 아와지 수면 다면적기능발휘 대책 사업(2013~2015)

○ 수산업·어촌의 지역사회 안정적 수산물 공급, 보건휴양, 교류, 교육의 장으로 제공 기능(다면적기능)이 쇠퇴

○ 다면적 기능 회복으로 수산업 재생, 어촌 활성화 도모

○ 사업주체 : 어업자를 포함 12개 활동단체

○ 주요사업 : 해저경운(해저생물환경개선), 해안청소·해안식생환경 보전, 어촌문화 보급(풍어제), 생선식 보급, 어부체험

■ 시사점

- 아와지시는 독자적인 귀어귀촌과 관련한 특별한 시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어업취업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어업취업은 각 어협에 의존하고 있음.
- 반면 미나미초와 동일하게 1차 어업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1차 생산환경이 개선되어야 2, 3차로 연계된다는 논리임. 특히 어획량의 감소와 어장환경의 개선에 대비한 독자적 사업 - 담수 방류 및 해저 경운 등은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 일본내에서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특히 해변마을의 농수용 저수지의 영양분이 풍부한 진흙을 바다로 흘려 보냄으로써 어패류에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농사용 저수지의 수량을 확보하는 일을 지역 어민과 봉사자로 구성하여 독자적인 행사로 진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6) 타고센베이노사토

일시 : 2018. 11. 21 (수) 13:00-14:00

위치 : Tako Sato I Awaji Hyogo

참고 : <http://www.takosato.co.jp/shop/>

□ 타고센베이노사토 개요

- 1998년 아카시해협 대교 준공을 기회로 산지직매장 시설인 ‘빨간지붕 (赤い屋根, 아카이야네)’를 설치, 테넨트로 입점
- 2001년 유한회사 타고센베이노사토 설립, 공장 겸 매장으로 영영 개시
- 일본인의 관광 기념선물로 인기있는 센베이(전병)를 주요 상품으로 아카시 지역의 명물 새우와 문어를 넣은 약 20여종의 상품 판매
- 일명 ‘산업관광’, ‘공장관광’으로 알려져 있는 관광의 일환으로 개설, 지역의 농산업과 가공 현장을 체험하는 지역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



□ 산업관광과 지역활성화

- 유럽의 와이러니 투어에서 모방한 일본의 산업관광은 아사히맥주공장과 같은 자본이 넉넉한 기업에 홍보를 겸해 시작
- 근년에는 소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활성화의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대표적 사례로는 교토의 전통채소를 활용한 소규모의 절임(장아찌) 가공사업체가 연합한 상점관광 등 전개
- 소규모의 가공사업체가 밀집한 지역, 상가 등에서 활용, 가공 및 작업현장의 일부를 노출시켜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시식코너와 더불어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스페이스와 휴식공간을 마련

■ 시사점

- 국내의 경우, 제주의 초콜릿박물관, 강릉의 커피전문점 테라로사, 사천의 다자연과 같이 농산업관광을 적극 도입,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부 김 가공 공장 등이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관광은 지역의 농어업을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가능성이 풍부함. 적절한 규모와 위생적인 환경과 쉼터 등을 마련함으로써 충남 어촌마을의 경우는 다양한 수산물 가공장에서 도입이 추천됨.

7) 아카시 우오노타나 · 우오노에끼

일시 : 2018. 11. 21 (수) 10:40-12:00

참석 : YASUHARA Hiroki 이사장/아카시타고주식회사 대표

위치 : Fish Station Akashi Hyogo

참고 : <http://www.uonotana.or.jp/>

□ 아카시 우오노타나 소개

- ‘우오노타(魚の棚)’, ‘오온타나’를 불리는 효고현 아카시의 상업지구로 생선 취급 가게가 많은 것으로 유명, 아카시 관광의 명소
 - ‘마에모노(first goods)’라 일컫는 아카시어항에서 들어온 신선 어패류가 인기, 특히 아카시도미, 아카시문어는 지역의 명물
- 약 400년 전(1618년) 아카시성 축성과 더불어 형성된 마을로 동쪽은 신선수산물, 서쪽은 건어물 취급이 특징
- 2005년 리모델링, 전장 350m의 아케이트에 약 110개의 점포가 입점



□ 우오노에끼 Fish Station

- 우오노타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1층 커뮤니티스페이스, 2층 사무실, 커뮤니티스페이스는 연간 이벤트 개최 및 전시
- 주요 활동 : 각종 이벤트/축제 개최, 우오노타나정보지 발행,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사회인 연수/시찰 지원
 - (재)아카시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와 협력 노천시장 개최
 -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은 많은 경우 4개교가 동시 운영되기도 함

□ 어업경영자 AFAR의 수산물 가공 및 판매 활동

- 2000년 아카시항 해태 양식자 9명에 의해 설립된 단체, Akashiura Fisherman's Active Reserch(AFAR)
- 수산물 가격 저하, 유가인상 등에 따른 경영 개선을 도모
- 학습회, 교류회 개최 월1만엔 회비
 - 통신판매 노하우 습득, 가공장 견학, 수산물유통판매회사 간담회 등 운영
- 2003년 지역산 쌀과 양식김을 활용 삼각김밥을 제조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개시
- 2009년 법인화(주식회사 신하마) : 가공장, 샵, 레스토랑 운영, 통신판매 실시, 수산물 노천시장 년 4회 개최
- 김 등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 어협여성부와 협력 가공상품화를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전국청년여성어업인대회 우수사례)



■ 시사점

- 수산물 전문시장 우오노타나는 항구에 인접하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신선 수산물의 저렴한 공급에 일조하고 있음. 전통이 깊은 시장으로 관광의 명소가 되기도 하지만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고려한 상품과 가격결정 등 상가의 목표가 매우 돋보임.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시장이 되어야 시장으로 제기능을 한다는 명확한 가치관이 있으며 일회성 및 이벤트의 단기 수요가 아닌 지속적인 장기 수요에 방향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상가번영회(사무국)의 대표를 40대 초반으로 선출하여 젊은층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의 변화에 큰 기여를 했음. 오래된 관습으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재래시장의 상가에서는 보기 드문 변화이며 경영개선의 일환이 되고 있음.
- 사무국은 상가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도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월별 크고 작은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꾸준한 모객 활동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생선식 보급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일환으로 초중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시장견학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연가를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수 있음.

8) 무로츠어업협동조합

일시 : 2018. 11. 22 (목) 10:40-12:00

참석 : NAKAGAWA Teruhiro 조합장

MIYAMOTO Banmuro 사무국장

YOSHIMURA, YAMADA 외 여성부 3명

위치 : Murotsu Fisheries Cooperative, Tatsuno Hyogo

참고 : <http://www.ninaite-genkinahama.com/contents/h26/murotu.html>

□ 무로츠어협 소개

- 조합원 140명(정조합원 87명, 준조합원 53명), 2017년 기준
 - 청년회 34명(꽃게부활활동), 부녀회 60명
- 출자금 : 86,970,000엔
- 어획고 : 11억엔(굴, 멸치, 까나리, 꽃게, 새우류, 삼치 등)
- 경영총수 217어가, 어선총수 192척
 - 저인망, 선인망, 정치망, 통발, 김양식(8), 굴양식(15), 어패류(28)
- 판매사업액 : 11억엔, 토토이찌 수산시장 8천만엔
- 구매사업액 : 1.5억엔(석유, 자재 등)
- 사업현황 : 공제사업, 제빙·냉동냉장사업, 이용사업, 지도사업, 무선사업, 후생공제사업, ATM점포, 직판시설



□ 무로츠어협 여성부의 수산물 먹거리 보급 활동

- 어협 여성부는 1959년에 결성 된 이후 ‘생선식(魚食)보급’, ‘지산 지소’,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

- 2002년 토토이찌(魚魚市)를 통한 직거래 개시 : 신선함과 저렴함으로 호평,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 토토이찌를 통해 토토이찌도시락(550엔) 판매 : 1일 200식 제조, 전량 판매되어 ‘환상의 도시락’으로 불림
- 2004년부터 생선의 맛과 자연을 알리는 이벤트로 ‘향토 요리급식회’ 년 1회 개최 : 무로츠초등학교의 전 아동, 유치원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노인 등 총 160 명이 참가
- 근년 어협 여성부의 ‘토토이찌극단’에서 춘극 공연으로 호평, 지역의 생선을 사용한 생선 요리 레시피 책도 자가 출판



■ 시사점

- 무로츠어협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명확한 특징을 가짐. 어부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은 1차 생산 활동에 주력하는 반면 여성들은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여 가공과 판매 등 2, 3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여성부의 활약이 돋보이는 어협의 이미지가 강함.
- 여성부는 사업적 조직으로 우리의 전통적 마을조직인 부녀회와 같이 마

을에 거주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가입되는 조직과 다름. 따라서 여성부의 가입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가입이후의 개인의 활동 여부에 따라 임금과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무료츠어협 여성부는 40~50대가 중심이 되어 15명 내외가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전개하여 토토이찌를 통한 수산물 직판, 도시락 판매를 통한 소득을 마련하고 있음.
- 동시에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식생활 프로그램의 파견 강사, 체험 강사 등의 활약과 더불어 지역 어업문화보급을 위한 문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됨.

참고	무료츠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奈良)시대 5개의 정비된 주요 항구의 하나로 1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항구마을 ○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에도시대의 삼근교대에서는 서쪽지방의 다이묘들이 해로를 통해 무료쓰에 도착한 후 육로로 에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관을 중심으로 각종 상업이 번성함 ○ 수산청 주관 ‘미래에 남기고 싶은 어업어촌 역사문화재 100선’에 선정 	

9) 구로몬이찌바

일시 : 2018. 11. 23 (금) 10:00-11:00

위치 : Kuromon Market | Nihonbashi Osaka

참고 : <http://www.kuromon.com>

□ 시장 개요

- 1822년 경 오사카의 ‘니혼바시’ 주변에 생선 장사들의 소매로 출발
- 1902년 시장으로 공인되어 확대되었으나 1940년 태평양전쟁으로 초토화되었다가 전후 상인들의 힘으로 복원
- ‘오사카 시민의 주방’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명물시장으로 인근 효고현, 나라현에서 방문
- 약 150개의 점포 중 수산물 취급 점포가 45개소 로 30% 차지. 채소 및 반찬류를 비롯해서 ‘먹다가 쓰러지는’ 오사카의 정서를 반영하는 명물 점포가 많음
- 1일 평균 방문객 18,000명, 연말연시에는 하루에 100,000명 이용



□ 시장 홍보 활동

- 소비촉진을 위한 기획이벤트를 실시, 이중 쇼핑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스탬프리리와 같은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아이디어 접목
-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장소개 및 계절에 따른 기획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고객 유치
- 이탈리아 밀라노시의 “소제이미”시장과 자매결연, 식문화를 통한 정보 교류와 친선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

자료 2 수산청 어항어촌 활력 지원 및 어업취업자 지원사업

□ 수산기본계획 2017

- 목적 : ①어업 성장 산업화, ②자원관리의 고도화
- 수산시책의 기본 방향 : 산업으로써 생산향상과 소득 증대
 - ‘항’ 단위에서 추진, 연안·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 수산 종합 주요 시책(일부 발췌)
 - ①국제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 육성
 - ②어항 플랜(fishing port plan)·광역 어항 플랜
 - ③신규취업자 육성 확보
 - ④해양기사 인재 육성, 수산교육 충실 : 수산관련 고등학교/대학교
 - ⑤외국 인재 영입
 - ⑥어패류 양식업의 기업 진입
 - ⑦수량 관리에 따른 자원관리, 연안어업 규제완화

□ 어항 활력재생 플랜·광역어항 활력재생 플랜(浜の活力再生 Plan)

- 어업소득 향상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목표로 어업자가 주체가 되어 5개년간 필요 사업 실시
- 사업 실시 5년후 소득 향상 10% 목표, 구체적 목표수치 제시
- 어항 활력재생 사업 프로세스



□ 물고기나라 행복 프로젝트 (魚の国のしあわせ Project)

- 수산물에 대한 소비 변화를 도모, 2012년 개시
- 중앙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 신규 어업취업자 확보·육성

- 전국어업취업자확보육성센터 <http://www.ryoushi.jp/>
-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지원 제도 활용
 - ①신규어업취업자 안정자금 : 최대 2년, 월 10만엔
 - ②신규어업취업자 연수지원 : 50~70만엔
 - ③주택임대료 지원 : 월 1~최대 3만엔

4. 소감과 평가

1) 참가자 소감

☐ 사카이데수산시장

-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이 다양하고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이 좋다.

☐ 카가와현 수산과

- 어업취업자확보육성센터의 취업상담, 매칭지원, 취업후 진로상담의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다.
- 어업학원을 통해 어업을 방문후 본인의사에 맞는 어업을 선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좋다.
- 생활안정급부금을 지원하나 일정기간까지 계속 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 반환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회수의 방법은 의문스럽다.
- 귀어를 원하는 사람을 소수로 훈련시켜 귀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인상적이다. 어업학원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있으며 6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실제 4개월을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귀어학교는 20~30명을 2~3개월간 다양한 분야에 교육을 시킴으로써 현재는 크게 실효성을 보기 어렵다.

☐ 미나미초 산업진흥과

- 영어 후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후계자도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귀어취촌인 뿐만 아니라 IT관련 업체 종사자도 받아들이는 점이 파격적이다.
- 지원보다 경제어업의 장려, 생산중시 6차사업보다 1차 생산어업을 중시한다.

-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 같아 좋다.

□ 이자리어업협동조합

- 연합된 모습, 자유로운 의사결정, 그것을 존중하는 리더의 의지가 돋보인다.
- 학교와 주민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 고령화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계기로 마을공동체가 어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단점일 수 있으나, 지리적 요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시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사례가 독특하고 흥미로웠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이자리어협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생각이 든다.
- 소규모 어협으로 자립하려는 발상과 노력은 우리가 본 받아야한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원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급하는 것이 중요(자율어업과 유사한 제도)하다.
- 마을내 폐교, 분교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구 감소에 대하여 다양한 유입정책을 활용하여 이자리를 알리고 기억하는 외부 세력을 형성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 이자리를 아는 사람 10만명이 목표라고 하지만 정작 마을에 귀어하는 분은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해변과 펄이 없는 넓은 바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풍경은 아름답지만 왠지 쓸쓸하고 고독하다.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어가는데 자원도 부족하다.

□ 아와지시 수산진흥과

- 시 차원의 예산이 없고 어협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점이 오히려

본받을 만하다. 국내의 경우 어촌계나 수협이 예산지원만 바라보는 것은 반성해야한다.

- 해저 경운의 방식과 도구에 대해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
- 아와지시어업진흥회 활동은 관내 9개 어협 조합장과 행정으로 조직되어 수산업 발전을 위한 모임과 더불어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구의 노력이 보인다. 수산업이라는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각 사업추진을 어협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구체적인 귀어귀어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고령화나 귀어귀촌에 더 많은 지원에 노력하는 것 같다.

□ 무료초어업협동조합

- 바지락 양식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 갯벌이 없는 관계로 살포방식이 아닌 수중에 도구를 이용하여 양식하는 방법은 고려사항이다.
- 어촌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남녀 모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어획량 감소의 현실을 1차산업과 결합하고 부녀회(여성부)의 2, 3차산업의 노력으로 전체 수익의 40%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
- 효고현의 풍부한 자연·역사·문화를 활용한 생산품은 지역의 우수함을 알리고 창의적인 상품을 선정하여 지역관광 및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 여성 조합원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도입 필요하다. 우리는 보여주기식 활동이라면 일본의 활동은 자활적인 활동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들의 교육 활동은 바로 도입이 필요하다. 청년회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활동은 우리가 반드시 도입하여야할 시책

으로 보인다.

- 부녀회의 활동이 어협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보다는 어협을 중심으로 한 단체 활동이 우선이라는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점으로 보인다. 어향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 어협의 활동과 현재의 사정보다는 마을부녀회 활동을 견학한것 같다.
- 부녀회의 활동이 비교적 활성화 되었다고 본다. 어부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조화롭다. 환경보존과 역사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 총평

-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타국 행정관청의 지원시스템이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유익하였다. 귀어귀촌자에게는 타국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써 국내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느끼게 해준 점이 좋았다. 연수전 사전교육(교육이수, 현장견학, 실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다. 고령화로 젊은이가 부족하고 어촌이주가 힘들다.
- 행정파트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든다. 현과 시정촌, 어협의 조화가 부족하고 각자 자기 일만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선진국답게 깨끗하고 기계화된 어업이 부럽다. 신규 귀어 희망자로서 자비로 해외를 견학하던 중 이번 연수가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전반적으로 어협과 그 관련 기관을 교차 방문함으로써 어협의 현실과 행정의 정책적 방향을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기초 자료가 번역되어 있어 방문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리뷰할 수 있어 좋았다.

- 어업인의 자구노력이 돋보인다. 행정기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조직원=사람이다. 남성들의 사고방식 중심에서 여성 중심의 사고방식 전환은 특이하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력은 특이하다.
-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경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본받고 도입하여야할 제도, 정신을 이번 연수를 통하여 체감하였다. 어항청결과 정리정돈, 어협을 중심으로 활동, 부녀회 활성화가 좋았다.
- 귀어귀촌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하는 계기를 보았다. 조직, 예산, 인력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 연수 참여 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연수 목적에 알맞게 연수단을 구성하면 좋겠다.
- 연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참여하는 예비 귀어인과 현장에 있는 어촌계장(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자리(방배정 등)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어촌의 고령화,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현실성에 대한 방안과 어촌지역의 특성화에 맞는 체험학습과 양식업에 따른 생산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을 통하여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은것 같다.
- 선진지 견학을 기대하고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 정형화된 규격과 깨끗함, 정감이 없어 보이는 차가움이 있다. 그러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위한 환경정화, 정리에 노력한다는 것은 좋다. 개인주의가 강한듯하지만 공동의 노력이 보인다. 어촌생활의 주산업을 특화하여 지역 특산물을 만들어 본 주민과 함께 홍보 광고를 한다는 것 또한 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은 높이 평가된다.

2) 설문평가

- 인솔 등 제외, 연수 참가자 18명중 16명 응답(2명 미제출)
- 해외 연수의 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10명 처음 참가, 5명 2번 이상, 1명 무응답
- 복수 해외의 경우, 대체로 동남아(일본)이 다수
- 처음 참가자 및 복수 참가자의 응답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음
- 1~5번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 질문으로 대체로 만족
- 6~10번 숙박 및 교통 등 여행인프라 관련 질문으로 대체로 만족, 다만 경로가 다소 길고 일정이 많았다는 의견은 다수 존재하나 불만족은 없음

	설문내용	평점	5점평가
1	본 연수의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4.62	5●4…3…2…1
2	방문지 및 방문기관의 선정은 만족하십니까?	4.31	5●4…3…2…1
3	방문기관 등의 설명이나 해설 등은 만족하십니까?	4.50	5●4…3…2…1
4	본 연수는 본인의 목적을 얼마나 충족(달성)하였습니까?	4.06	5●4…3…2…1
5	본 연수는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수 있는 내용입니까?	4.56	5●4…3…2…1
6	통역가이드의 통역과 해설 등은 만족하십니까?	4.56	5●4…3…2…1
7	본 연수에서 식사는 만족하십니까?	4.43	5●4…3…2…1
8	본 연수에서 숙박은 만족하십니까?	4.62	5●4…3…2…1
9	본 연수에서 차량 및 이동거리는 만족하십니까?	4.00	5…●…3…2…1
10	본 연수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37	5●4…3…2…1
	합계 평점	4.40	5●4…3…2…1

□ 참가자 의견

- 연수기간은 2박3일 정도가 좋다.
- 일정이 좀 많다. 타이트하다.
-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 만족한다. 어촌계장 및 사무장과 예비귀어인의 비율을 맞추면 좋겠다. 어촌정착에 도움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숙박이나 식사 등은 만족한다.
- 시군 행정기관, 수협의 동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행정의 수산정책이나 어협의 운영방안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시설, 현대화된 관련 시설 시찰과 기술지도 등 현장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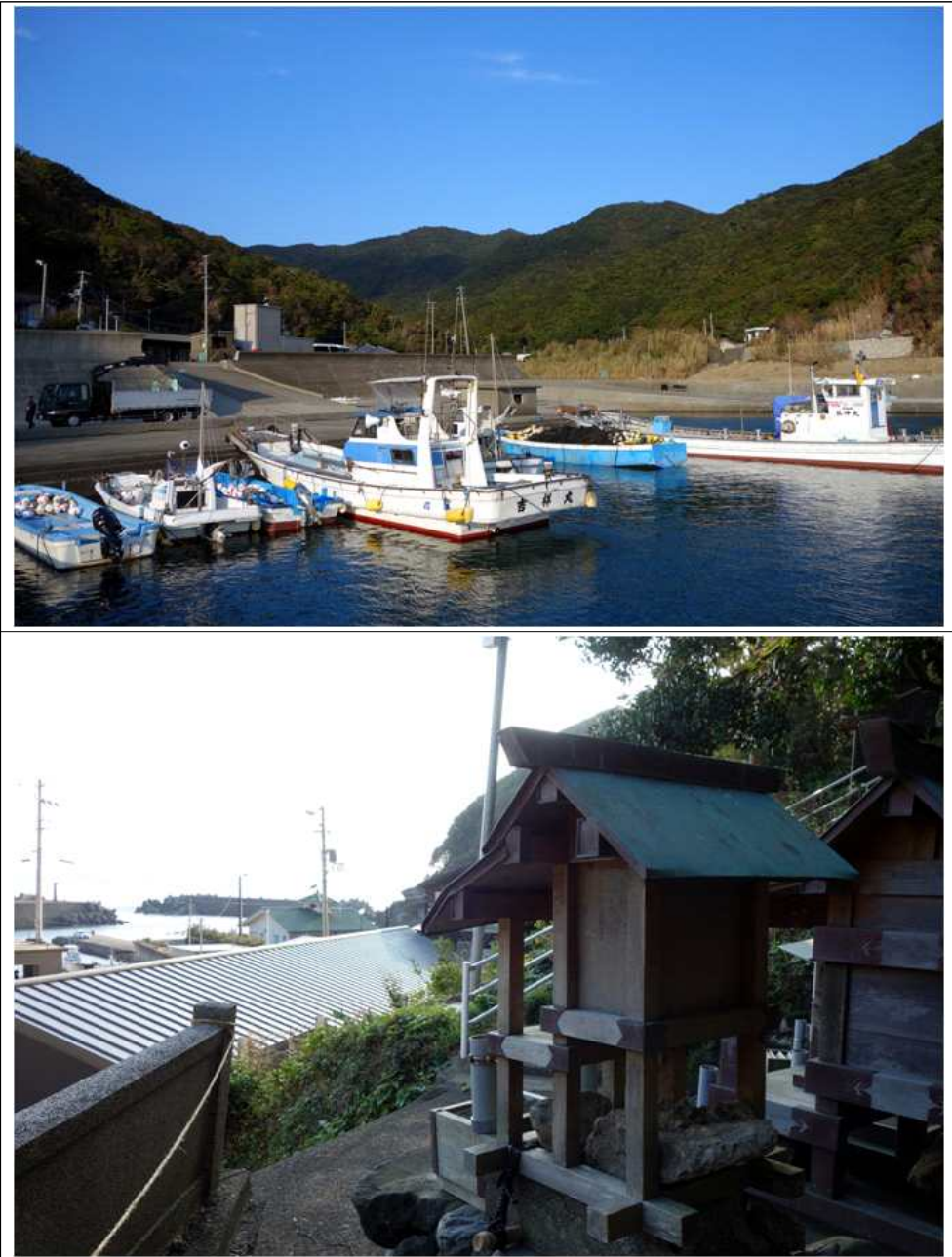
카가와현 수산과 간담회



이자리cafe



이자리어촌마을



이자리어촌마을 | 이자리어협



도쿠시마 야경 | 아와오도리박물관



아와지시 수산진흥과 간담회



우오노타나 | 우오노에끼



수산물 가공상품



수산물 가공상품



무로츠어항 | 무로츠어협



무로츠어항 | 무로츠어협



무로츠어항 | 오르가노cafe



충남 귀어귀촌지원센터 해외 선진사례 학습 및 견학 보고서

2018. 12. 4

보고서집필 : 지화영 jeebeer@hanmail.net

연수지원 : (주)지역아카데미 | (주)링크이트레블

발행처 : (주)지역아카데미